

노인부모부양에 관한 기혼자녀세대의 인식: 초점집단토론(FGD) 자료분석을 중심으로*

조 성 남**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도래한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노부모 가족부양의 한계 및 노부모 부양에 대한 기혼자녀세대의 인식과 국가정책에의 기대를 파악한다. 자료는 기혼자녀 30대와 40대 응답자들을 나이, 성별, 부모동거 경험여부에 따라 각 5-6명씩 구성된 총 8개 집단의 초점집단토론(FGD: Focus Group Discussions)을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결과 노부모부양의 우선적인 책임은 가족에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노부모 가족부양의 부담감이나 부모와 동거시의 애로 사항도 제시된다. 특히 부모가 더 연로해지거나 건강이 나빠질 경우에 예상되는 동거부양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나타났다. 우리사회에서 노부모는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과 복지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가족이 부모부양을 전담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부양에 대해 국가 및 지역 사회의 책임 비중 및 기대 또한 증대됨을 전망할 수 있다.

핵심단어: 고령화, 가족부양, 노인부양, 초점집단토론(FGD)

I. 서론

인구변천은 가구규모나 세대구성, 그리고 가족형태 등에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 현상과 인구고령화는 부양인구와 피부양인구 비율의 균형을 점차 깨뜨리며, 그 결과 발생하는 노인부양과 복지의 문제는 고령화 사회의 당면 과제로 등장하였다.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등 급속한 사회변화가 진행되면서 핵가족화, 소자녀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 전통사회의 가부장적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변화되었고, 가족에서 중심적인 역할도 부모에서 자녀로

* 본 연구논문은 2005년도 《성곡학술문화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자료 일부가 이용되었다.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바뀌고 있다. 주거형태도 노부모들이 기혼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중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비율이 1980년 19.5%에서 2000년 50.9%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독거노인의 비율은 1980년 4.8%에서 2000년 16.8%로 증가하였다(김두섭·박상태·은기수, 2002). 또 통계청 2000년 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 비하여 1세대 가구는 증가(11.8% 포인트)한 반면, 3세대이상 가구는 크게 감소(-18.8% 포인트)하였다(통계청, 2005).

가족구조뿐만 아니라 노부모부양에 대한 가치관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지난 2002년 전국 15세 이상 7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노부모부양을 가족이 책임져야한다’는 응답은 70.7%로 1998년보다 19.2% 낮은 수치이다(통계청, 2002). 게다가 60세 이상 노인 중 45.8%가 ‘앞으로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결과로 자녀의 노부모부양 가치관 못지않게 노인들의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욕구도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기적인 질병을 앓는 부모에게 절연 각서를 쓰는 자녀들, 현대판 고려장의 등장, 자녀에게 버림받고 자살하는 노인 증가 등의 신문기사는 현대사회에서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이 얼마나 약화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통적으로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존경받으며 지내던 노인이 가정에서 부담스러운 존재로, 나아가 학대받는 존재로 변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노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과거 가정에서 주로 노인을 부양해 왔던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이 집에서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더욱 희박해지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전통적 장남위주의 가족부양의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부모의 부양은 장남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강하나, 자녀 모두의 책임이라는 의식으로 차츰 바뀌고 있다. 게다가 노인부양이 자녀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의 책임이라는 의식도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2). 그동안 가족은 노인을 위한 사회적 통합과 재정적, 정서적 지원, 신체적 보호를 제공하는 원천으로의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현대 노인의 부양이 가족에게서 노인자신으로, 그리고 다시 국가 등 공적기관으로 이행해가고 있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태현, 2002:68).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도래한 고령화 사회의 노년기 생활세계의 변화를 배경으로 가족의 노부모부양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기혼의 중년세대를 중심으로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시대의 변화하는 노인의 욕구와 가족관계 속에서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특히 노부모부양에 대한 부담 및 그 한계를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노인부양모형의 정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II. 노인부양관련 선행연구

부모부양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고 노부모부양에 대한 가치관이나 부양의식과 실천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최정혜, 1999; 김두섭·박경숙·이세용, 2000; 김상욱, 2000; 김정석·김익기, 2000; 모선희, 2000; 박영란, 2000; 윤현숙, 2000; 김윤정·이창식, 2005).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 연구들 가운데 중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주로 노인부양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들이다(김윤정·이창식, 2005:338-340).

김두섭·박경숙·이세용(2000)의 연구는 노부모부양 책임을 지고 있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노부모부양을 세대간 교환관계의 측면으로 파악하여 노부모와 성인 기혼자녀간의 정서적, 도구적, 경제적 지원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한 것이 특징이다. 상호 교환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지원은 정서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미미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그리고 도구적 지원의 순서이다. 따라서 노부모와 기혼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노부모와 자녀의 권력관계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부모자녀 관계는 노령기일지라도 부모가 주로 자녀로부터 받기만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호혜적 관계인 경우가 많다. 즉, 부모자녀 간에도 어떤 교환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공유해야만 노인들의 권위나 지위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대사회의 노인들은 농경사회의 노인들에 비해 낮은 권위나 지위를 갖게 되며 가족 관계에서도 의존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최순남, 2002).

모선희(2000)는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하여 과거에 비해 부모부양이 장남의 책임이라는 의식에서 자녀 모두의 책임이라는 의식으로 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자녀 뿐 아니라 국가나 사회의 책임, 그리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식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부모부양을 논함에 있어서 부양을 담당하는 자녀들, 특히 여성들의 스트레스와 부담감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노부모부양을 경제적 부양, 정신적 부양, 신체적 부양의 세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부양의 경우는 국가의 지원이 미미하고 노후를 위한 노인 자신의 경제적인 준비도 미흡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특히 아들이나 장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다. 정신적 부양의 경우는 주로 배우자나 아들 부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었다. 오늘날 정서적 부양의 측면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면을 고려할 때 딸에의 정서적 의존이 높아지는 것은 새롭게 연구해 보아야 할 측면이다. 신체적 부양은 초고령 노인의 증가와 더불어 현재 가족부양의 한계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점차 한 자녀 가족이 늘어나고 딸도 친정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노인부양에서 가족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슈들이 제기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박영란(2000) 역시 기존의 노인부양에 대한 연구를 고찰하며 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예로 들고 있다. 질병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 대부분 혈연관계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주부양자는 55세 이상의 여성임을 보여준다. 경제적 부양은 장남과 큰며느리의 부양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부양 역시 장남과 큰며느리에의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욱(2000)은 노인부양에 대한 태도와 행위의 불일치를 살펴봄으로써 태도가 행위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지적하였다. 우선 부양태도와 행위의 세대 간 불일치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부양자는 현대적인 의식을 보유한 것에 반해 피부양자는 전통적인 의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부양에 있어서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이러한 세대 간 부양태도의 차이가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음이 지적되었다. 부양행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세대 간 불일치가 나타났다. 이는 서로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차이도 세대 간 만족도의 차이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같은 세대내의 부양에 대한 태도와 부양행위 간 불일치도 높는데, ‘현대적인 태도’를 가졌으나 ‘부양행위’를 높은 정도로 수행하고 있는 부양자의 경우 심리적 부담과 압박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부양의식의 차이에 대한 김윤정·이창식(2005)의 연구에서 청소년 자녀세대와 그 부모세대 285쌍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자녀세대가 부모세대에 비해 경제적 부양의식과 정서적 부양의식이 높다. 자녀의 특성에 따른 부양행동의 차이는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적 부양행동이 감소하며, 자녀가 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지각할수록 신체적 부양행동과 정서적 부양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현숙(2000)의 연구는 노인부양의식과 효 의식이 약화됨에 따라 노인부양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노인부양에 있어서 가족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부양자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 악화와 세대 간 갈등, 경제적 부담, 가족의 건강 악화 등을 야기할 수 있다. 현재 노인부양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제도와 정책이 가족과 개인의 책임을 우선으로 하고 있음이 문헌 고찰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노부모부양은 자녀의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직 높게 나타나지만, 사회와 국가의 지원과 보조의 필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단편적으로 부양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노인 자신이 노후에 누구와 살고 싶은가에 대한 응답을 통해 가치관이나 부양행동을 분석해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세대를 중심으로 부모부양의 실제적 어려움, 가족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노인부양에 대한 국가, 사회에의 기대와 정책에의 만족도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아직도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년층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이들 자녀세대들의 노인부양과 관련된 실제적 경험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부모부양과 동거의 경험을 통해 파악된 실제적 어려움과 부담감의 내용, 가족부양책임에 대한 견해, 노인부양에 대한 국가, 사회에의 기대와 정책평가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III. 연구방법 및 자료

본 연구의 실증적 기초자료는 질적 방법을 통해 수집되었다. 연령, 성별, 부모자녀 동거여부 및 부모부양경험별로 소규모초점집단(focus group)을 구성하여 심층토론 및 면접을 실시하였다. 초점집단토론을 위한 인터뷰 가이드(interview guide)가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 토론이 실시되었다.

- ① 부모자녀와의 관계 양상 및 만족도
- ② 부모자녀와의 부양관계 욕구 및 바램
- ③ 부모부양에서의 기대와 현실의 차이
- ④ 부모부양의 가족부양의 애로사항 및 가족책임의 한계
- ⑤ 부모부양의 국가 및 사회적 책임의 기대 및 범위
- ⑥ 현재 시행되는 노인부양관련 정책의 평가 및 제언

초점집단토론(FGD)은 2005년 10월부터 12월초까지 (주)아이앤아이 마케팅 리서치회사에서 진행되었다. 초점집단토론은 연령별(30대와 40대), 성별(남녀)집단 및 부모동거경험 유무별(부모동거가족/부모비동거가족)로 5-6명의 응답자로 구성된 총 8개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목적에 맞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전문 리크루터를 통해 면접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진행자(moderator)에 의해 제기되는 주제에 따라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토론이 진행되었고, 각 토론은 대략 1시간 30분-2시간 정도의 간격으로 이루어졌다. 주제에 대한 개별적인 심층면접과는 달리 초점집단토론을 통해 유사한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부모부양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응답자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의견교환을 하게함으로써 부모부양과 관련한 주제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부모부양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는 대답하기 어렵거나 꺼리던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을 통해 서로 비슷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는 더욱 활발하게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표 1> 초점집단토론(FGD) 대상자의 특성

연령 집단	성별	부모 동거 여부	ID	이름	나이	결혼 기간	자녀	연령 집단	성별	부모 동거 여부	ID	이름	나이	결혼 기간	자녀	
30대	男	동거	1	정00	36	8년	1명	40대	男	동거	22	이00	41	15년	2명	
			2	권00	39	9년	1명				23	남00	40	5년	2명	
			3	김00	35	8년	1명				24	김00	49	15년	2명	
		비동거	4	남00	32	2년	없음				25	이00	48	20년	2명	
			5	이00	32	4년	1명				26	문00	49	17년	3명	
			6	오00	32	5년	2명				비동거	27	강00	40	4년	1명
			7	이00	32	1년	없음					28	김00	40	6년	2명
	동거	8	김00	31	1년	없음	29			김00		47	22년	1명		
		9	남00	34	1년	없음	30			이00		41	13년	1명		
		10	민00	37	8년	2명	31			이00		40	10년	1명		
		11	조00	30	1년	없음	32			김00		48	15년	1명		
	女	비동거	12	심00	31	3년	1명			33		정00	47	17년	2명	
			13	심00	32	2년	없음			34	송00	47	12년	2명		
			14	박00	33	5년	1명			동거	35	김00	41	18년	2명	
			15	함00	31	1년	없음		36		이00	40	12년	2명		
			16	김00	32	6년	1명		37		구00	43	15년	1명		
			17	김00	36	7년	1명		38		최00	43	14년	3명		
			18	문00	33	8년	2명		비동거		39	박00	43	16년	1명	
			19	어00	34	4년	1명				40	정00	41	11년	2명	
			20	황00	32	4년	없음				41	김00	47	23년	2명	
			21	양00	35	8년	3명			42	허00	43	15년	2명		
												43	김00	44	19년	2명

면접은 녹화시설을 갖춘 회의실(one-way mirror room)에서 전 과정이 녹화되었으며 연구자와 연구조원이 전 면접과정을 지켜보면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그때그때 확인하면서 진행되었다. 전문스크립터가 기록한 토의 내용 및 녹음테이프를 녹취하여 내용분석한 후 보고서를 작성했다. 초점집단토론에 참여한 사례는 총 43건이고 초점집단토론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은 제시된 <표 1>에 요약되었다.

IV. 노부모부양의식과 부양책임

1. 노부모 가족부양의식과 책임

김태현(2002)은 국가나 사회가 제도나 법률을 아무리 정비하고 시설이나 지원체계를 증가시킨다고 하여도 가족만큼 노인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공적부양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서구에서도 노년기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는 가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들은 특히 몸이 아플 때는 제일 먼저 가족에게로 간다고 하고 있다. 그는 누가 노인을 돌보고 노인의 욕구충족에 누가 얼마나 기여하는가는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사회보장이나 여러 제도 및 시설의 제공이 모든 가족의 보호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노인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어떠한 제도, 어떠한 기관보다도 가족의 중요성이 커지게 됨을 지적한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식민지와 전쟁의 경험, 해방 전후의 이데올로기적 혼란, 산업화 등의 독특한 역사적, 개인적 경험을 통해 가족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몸과 마음을 맡기기 어렵고 생존을 위한 유일한 안전장치가 가족밖에 없었던(윤진·은기수, 1995) 우리나라에서 설득력이 크다. 그러나 오늘날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가치관이 변하면서 노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기존의 연구에서 노인부양은 장남부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점차 자녀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으로 변화함을 보여준다. 양적조사에 의하면 장남가족이나 기타 아들가족의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은 점차 줄어들고 ‘여유 있는 자녀’나 ‘자녀 모두’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차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녀의 책임이기보다는 노부모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의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젊은

연령집단에서는 자녀공동의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나이가 들수록 노부모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김태현, 2002; 통계청, 2002).

양적자료가 보여주는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고 있는 바는 여전히 장남이나 아들에 대한 노부모의 부양 기대는 남아있으며 이것이 가족 내의 보이지 않는 갈등요소로 남아 있다. 특히 최근 자녀수 감소로 장남의 책임이 표면적으로는 다소 가벼워졌다. 그러나 부모도 장남에 대해 의지하는 것이 현실이고 형제간에도 장남 또는 아들이 부모부양을 책임지기 바라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기대에 장남 또는 외아들도 대체로 수긍하고 있으나 이 때문에 심리적 부담을 과중하게 느끼고 있었다.

요즘은 장남·장녀 구별이 없지만, 부모님은 장남이랑 같이 살고 싶어 하세요 (35세 남, 부모 동거)

당연히 자식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책임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난 누나들이 있기는 하지만 남자인 내가 100%로 책임져야지요! (32세 남, 부모 비동거)

난 둘째라서 그런지 내가 다 책임져야한다고 생각 안 해요! 형이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난 그 보조역할정도로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32세 남, 부모 비동거)

우리가 큰 아들이기 때문에 늘 상황은 안 되어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늘 ‘언젠가는 모셔야지’, ‘안 모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36세 여, 부모 비동거)

2. 부모부양의 애로사항 및 가족부양의 한계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노부모 가족부양의 애로사항이나 부모 동거시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부모와의 동거 시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세대 간 사고방식차이, 생활 패턴의 차이, 자녀교육에 대한 노부모의 간섭, 재산상속과 양도의 문제 등이었다.

하나하나 문제예요. 부엌을 써도 어머니와 집사람이 놓는 자리가 달라요. 아이들 용으로 반찬을 따로 만들어주면 ‘왜 난 안 줘? 아까 보니 애들 주던데...’ 이러세요. 그래서 힘들구나 싶어요. 서로 스트레스 쌓이고, 제가 중간에서 중재도 해야 하는데... 신경이 쓰이죠 (36세 남, 부모 동거)

아침, 저녁 식사를 매번 해야 하는 것, 외출했다가도 식사 시간 맞춰 들어와야 하는 것, 외출 자유롭지 못한 것, 물건 맘대로 사지 못하는 것이 불편해요 (43세 여, 시부모 동거)

어머니가 직장생활 안 하신 분이라 친구 만나는 것 등 이해 못하세요. ‘왜 나가느냐’, ‘집안일 놔두고 어디 가느냐.’ 등. 말도 못해요 (41세 여, 시부모 동거)

...편안히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요. 또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줘야하고, ...사소한 것들이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교육방식과 나의 교육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자녀 교육시의 갈등도 있어요 (37세 여, 친정부모 동거)

현재 부모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부모와 동거하며 경험한 어려움을 얘기하거나 장남으로서 언젠가는 부모와 함께 동거하며 경험하게 될 어려움을 미리 걱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 집에 살면 부딪히는 일이 더 많아서 서로 관계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결혼 초에는 시댁 근처에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수시로 말씀도 안하시고 들락거리셔서 갈등도 많았어요. 집도 안 치워놨는데, 갑자기 오시고 하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불편한 건 질색이니까 가끔 오시는 것도 그런데 같이 사는 건 더 그렇죠. 저는 남편한테도 얘기했지만 같이 사는 건 서로한테 안 좋은 거 같아요 (44세 여, 부모 비동거)

애들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간섭하고 하니까 귀찮아하고. 아무래도 계속 옆에 같이 있어 주기를 바라고, 어디 갈 때마다 말씀드려야 하고, 나갔다가도 식사 때 되면 들어와야 하고. 아무래도 유산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친정아버지가 우리 큰 애를 유달리 이뻐하는데 우리가 들어가 사니까 제 남동생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43세 여, 친정부모 동거 경험/현재 비동거)

부모(어머니 아버지 모두)와 의견 충돌, 특히 나와 아버지와의 의견충돌이 항상 문제였어요. 경제적 문제, 형제자매 간 재산분배 문제 등에서 아버지의 간섭이 지나친 점이 있어서...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도 나로서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아주 사소한 문제를 놓고 두 사람 간 기득권 다툼이랄까... 누구 편 들 수도 없고 머리가 아프고... 부모 모시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47세 남, 부모 동거 경험/현재 비동거)

주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부모부양의 애로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 부모를 방문하는 것은 자녀로서의 의무로 인식하고 큰 불

편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한편, 30대와 40대 초반 응답자들의 경우 부모가 상대적으로 젊거나(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 아직까지 경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의 동거는 부모부양의 의미보다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경제외적 조력의 의미가 강하게 부각된다. 즉, 자녀가 부모를 부양한다기보다는 부모와 동거하면서 오히려 자녀들이 얻을 수 있는 지원이 더 많다고 여기고 있다. 특히 장남이 아닌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기보다는 부모와의 동거로 인해 여러 가지 보상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의 동거는 심리적 불편을 느끼게 하므로 여건이 나아지면 부모와 별거하기를 원하고 있다. 불편함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의지하는 데에서 오는 심리적 불편함을 포함한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들 돌볼 사람이 없어 우리의 필요로 인해 부모님께 빌붙게 되었는데, 아내가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업무로 인한 늦은 귀가)과 며느리로서의 역할(시부모에게 저녁을 받는 문제 등) 사이에서 매우 불편해 하더군요 (41세 남, 부모동거)

내가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은 부모님을 부양한다기보다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에게 종속적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부모로부터 자율적이고자 하는 욕구는 더 커지고 같이 사는 것에 조금은 회의적이 되었어요 (40세 남, 부모 동거)

40대 중반 이후 남성응답자들은 노부모부양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나 배우자는 부모와 동거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한다. 특히 농촌생활에 익숙한 노부모가 낯선 도시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다.

나는 부모와 같이 사는 걸 원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스트레스 받아 같이 살기 참 힘들었어요. 아내는 자신의 입장을 헤아려 주지 않고 내 욕심만으로 시부모 모시는 일을 주장한다고 나를 자주 비난했고 아내로서도 어려움도 많고 갈등도 많았겠지만 나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모시기는 했지만 편히 모시지 못하는 것 같아 늘 마음의 부담을 느꼈거든요 (49세 남, 부모 동거)

...농촌생활에 익숙해있는 어머니 역시 아파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집사람과 서로가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48세 남, 부모 동거)

초점집단토론 면접자들은 이처럼 부모와 동거할 경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진다고 느끼고 있다. 따라서 부모와 동거하며 부양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녀로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여전히 강하다. 특히 만아들의 경우 부모를 모시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여길지에 대해 민감하게 의식한다.

3. 아프면 누가 돌보나

자녀들의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이나 부담감은 부모의 건강이 나빠져 오랜 기간 간병과 수발을 해야 할 경우 더욱 심각하게 커지고 있다. 응답자들은 부모에게 질병이 있을 때에는 부모를 전문시설에 위탁하고, 그 비용은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내고, 일주일에 한두 번 부모님을 방문 간병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장남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며, 장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여건이 되는 자녀가 부모를 모시되 나머지 자녀가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하였다.

...본인이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병원에 입원, 간병인을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가끔 방문하는 것이 최선책이고 만약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큰자식이 책임지고 다른 자녀의 도움을 받아 부모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49세 남, 부모 동거)

장기간 입원할 경우, ‘너는 왜 안 오니?’ 등등 각자의 생활이며, 학교, 직장 등으로 바쁘게 이로 인해서 싸움이 생겨요. 동거하고 있는 우리만 독박 쓰는 거죠. 그러느니 차라리 각출해서 아예 간병인 쓰고 싶어요. 주말에만 자식들이 번갈아 가면서 간호할 수 있도록 (43세 여, 시부모동거)

특히 암, 뇌졸중, 치매 등 장기치료가 필요한 노년기 만성질환의 경우, 의료비용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자녀들과는 같이 살지 않고도 노부모를 편하게 부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실비의 노인시설이나 실버타운 등의 주거, 그리고 노인들의 자립적 경제생활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4. 미래 노년기 부모자녀관계의 기대와 욕구

현재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는 문제와 비교하여, 응답자 자신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에는 부부끼리 거주하며 자녀와는 따로 살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는 노인시설이나 실버타운 등의 거주를 계획하고 있었다.

절대적으로 따로 삽니다. 그때 되면 아이들이 불편해하고, 자기표현의 자유랄까... 서로 불편하죠 (35세 남, 부모 동거)

자식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멀리는 아니더라도 따로 살고 싶고, 둘 중 먼저 죽는다면 왔다 갔다 하면서 가깝게 살되 자식들과 같이는 안 살래요. 장남과 종손이라는 것만 도 어깨가 무거워요. 내 자식에게는 8대 종손이라는 무게를 지우기 싫어요. 저는 도련님하고 살아봤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편해요, 부부끼리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40세 여, 시부모 동거)

이러한 경향은 자신이 노환에 걸렸을 때나 배우자 사별로 독거하게 될 경우에도 동일했다. 자신의 세대가 부모부양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신의 자녀에게만큼은 그러한 부담감을 지우고 싶지 않다는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자녀에게 기대는 거 보다는 노인도 혼자 서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적어도 20년 이상은 펜션을 텐데. 그 사이에 더 발달되겠지요. 만약 살 곳이 정해지고, 그 시설에서 웬만한 서비스가 다 제공되면 굳이 아이들한테 부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또 어느 정도 저희는 노후대책을 하고 있으니까 집 구해서 남편이랑 살던가, 남편이 먼저 가면 친구랑 살던가. 저는 같이 살 사람 많아요. 별로 걱정 안해요 (43세 여, 부모 비동거)

그러나 거의 대다수의 응답자는 “자신의 노부모가 병석에 있을 때 자녀로서 병간호를 하여야”한다는 반응이었다. 자신이 자녀로서 부모의 병수발을 하는 것과 자신이 부모로서 자녀의 병수발을 받는 것은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점점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연령이 높아지는데 대한 불안감과 함께 자신들의 노년기에도 자녀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도움을 청하며 의존한 채 살아갈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건강하게 잘 커서 직장 잘 잡고 나이 들어서 부모한테 안 기대고 자립하는 거 말고는 바라지도 않아... 뭘 바라겠어... (48세 남, 부모 비동거)

맞아. 맞아. 뭐 아쉬워서... 계속 우리한테 그러지 않고. 애들 봐달라고 달려오고 그런 거 아니면 뭐. (웃음)...나는 애들이랑 같이 산다는 거 생각도 못하겠어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나는 그냥 우리 애가 나한테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손이나 벌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자기 가족을 스스로 부양하고, 우리한테 기대지 않고, 애네가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대지 말고... 기댈까봐 걱정이야 정말... (33세 여, 부모 비동거)

자신의 노년기에는 자녀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원하기보다는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유대와 관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예를 들어 초점집단토론자들은 자신들의 노년기에 자녀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나에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자녀들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다.

5. 가족부양 책임의 한계와 국가 사회에의 기대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노부모부양책임이 전적으로 가족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노부모부양에 있어 ‘가족의 도움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국가나 사회가 도와주는 방향으로 노인부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아직은 노부모부양책임이 전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는 극단적인 태도는 없지만 ‘가족의 보살핌보다 국가나 사회의 지원이 앞서야한다’는 반응도 상당히 많은 호응을 보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점집단토론의 한 응답자(49세 남, 부모 동거)는 “우리나라에서 노인부양은 자녀들의 개인 책임인 것이 현실이다. 사회나 국가의 역할이나 책임은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노년기 부양의 문제는 노인 자신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즉,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의식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젊은 시절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었다. “자식에게 부양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미리미리 노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 중 경제적인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48세 남, 부모 동거). 특히 건강과 관련하여 노인 의료비용과 주거시설에 대한 대책에서는 국가 및 지역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노인의 건강 문제는 국가가 지원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건강에 중점 두는 노인복지 정책이 필요하며...노인들을 위한 정기건강검진제도, 아프면 무료 또는 건강보험보다 싼 비용으로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 건강보험, 의료체계의 확립이 필요해요 (49세 남, 부모 동거)

결국 이것도 경제적인 문제랑 같이 가는 거지만,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가 문제지요. 보통으로 살던 집도 누구 하나 병나면 병원비로 모아둔 걸 다 써버리니까. 우리나라는 돈 들어가는 것들은 다 의료보험이 잘 안되어서. 노인들의 경우는 만성질환이 한 두 개씩은 다 있는데 그 약값이랑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재력을 갖춘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우리 시집도 연말 정산할 때 보면, 병원비가 차지하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하다못해 비타민이나 종합건강식품 같은 것도 보통 비싸야지요. 또 나이가 드실수록 건강검진을 받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대로 하려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얼마 전에 동생이랑 우리 친정 엄마 생신에 두 분 건강검진을 해드렸는데요, 두 집에서 다 내려니까 그것도 적지 않더라고요. 몇 년에 한번 씩은 해드렸으면 맘이 편할 것 같은데, 너무 비싸서... 저는 노인들 건강문제에 대한 대책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해요 (43세 여, 부모 비동거)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노부모부양의 우선적이고 주된 책임은 아직도 개인이나 가족에게 있다고 생각하나 국가나 사회의 지원과 역할이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초점집단토론자들은 국가사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는 대체로 매우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국가의 부모부양관련 정책들은 “허울만 좋을 뿐 그 실효성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고, 있다 해도 실질적으로 노부모부양세대에게 도움도 안 되고, 노부모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와 동거하는 30대 여성 집단에서는 노년층 부양에 대해 노년층 개인이 받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는 30대 여성의 경우 실질적 부모부양자로서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부모 개인은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기! 상황이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자식에게 의지하고자 하고 부양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33세 여, 부모 비동거).

부모와 동거중인 40대 남성은 가족에게 노부모부양책임의 절반은 있다고 여기며 노부모부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도 없고”, “기대해

보았자 소용도 없고”, “정책에 대해 회의적이며 믿을 수도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40대 후반의 남성들은 실질적으로 노부모부양 책임의 부담을 크게 가진 층으로 국가정책에 실망하여 부모부양에 대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체념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30대 여성의 거의 일치된 의견은 실질적인 동거부양의 부담감은 적게 가지면서 자녀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으로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서적 부양을 하는 정도가 이상적인 가족의 노부모부양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서적 유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배타하지 말고, 처음부터 색안경을 끼고 거부하지 말며, 같이 살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부양하는 것이 부모와 나 사이에 가장 적절한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경제적 도움(용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죠.”라고 답하며 대체로 이상적이고 원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40대 여성 집단도 “안정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 그러니까 연금제도가나 역모기지원 등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현재 부모와 동거하며 부양의 책임과 부담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31세 여성은 노인부양의 문제는 현재의 시스템만으로는 문제해결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획기적인 사회적 제도마련이 시급함과 국가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노후는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인 것이죠. 일차적으로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재정적으로 안정된 위치를 구축해 놓아야 합니다. 물론 노인들이 고령으로 인한 만성질환 등으로 고통 받을 때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재정적 능력이 되는 사람은 가족의 도움이 아니더라도 간병 도우미 등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불가능할 때는 어떠하겠는지 생각해 보아야지요. 노부모부양을 모두 가족의 책임으로만 돌린다면 생존을 위해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가족의 경우 엄청난 희생이 강요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단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가족이 없는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다면 자신의 노후를 위해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하는 것인가요? ...노부모부양의 주체를 가족으로 보는 한, 현재의 시스템 밖에서 고통 받는 소수의 사람들이 항상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후를 대비한 사회보험제도 등이 보다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옛 풍습 중 품앗이처럼 자신이 젊었을 때 노인을 혹은 환자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이 늙었을 때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지방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제공 체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1세 여, 부모 동거).

6. 현재 시행되는 부모부양관련 정책의 평가

본 연구의 초점집단토론 대상자들은 현재 시행중인 국가의 부모부양관련정책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정책의 효과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노인부양과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 그리고 국가, 사회에 대한 기대와 그들이 생각하는 대안적인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노년기는 고정적인 수입원이 사라지고 연금과 같은 노후 대책 자금을 활용해야 할 때인 것이다. 노년기 대책으로는 일단 경제적인 능력을 길러야 한다. 국민연금은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않으므로,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노년을 준비하기 위한 연금이나 또는 다른 재테크 기반을 다져두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30세 여, 부모 동거) 고 지적하면서, 응답자들은 대체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 부양정책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들이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내용은 국민연금이나 노인취업박람회 등의 경제관련 정책, 의료서비스에 대한 제도, 노인임대아파트 등의 노인 주거문제와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과 역할에 관한 측면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국민연금의 경우 전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일정 비용 이상을 징수하고 있으나, 그 재원이 곧 고갈될 것이라는 것이 통설이고, ‘과연 내가 지불한 만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있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노년이 되어도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는 불신이 팽배하여 국민연금의 근본적 개혁 또는 폐지를 열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 노년기를 국민연금과 같은 나라 정책에 의존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저축하고 보험, 적금 등을 들어서 스스로 대비해야합니다. 저희 부모의 경우 저축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요즘같이 금리가 썩 시대에, 있는 돈 자꾸 까먹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해요. 그래서 빌딩 등의 임대 수익과 같이 매달 돈이 들어오는 수익사업이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34세 여, 부모 동거)고 토로한다.

현재의 의료서비스로는 노령인구 층의 막대한 의료보험료 및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노령인구를 위해 실제적으로 감당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비, 약값 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경우 암 진단 등이 가능한 2차 검진은 선택 영역인데, 선택하더라도 대기시간이 매우 길며, 내실 있는 검사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속 있는 건강검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중풍 등 장기 요양을 요하는 경우, 자식의 의존을 벗어나 치료 가능하도록 사회의료 체계가 ...예를 들어 가정방문 간병인이라든가 하는 의료진도 필요하죠 (47세 남, 부모 동거)

치매질환의 경우 전문센터가 있긴 하지만 전체 환자 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고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치매노인 주간보호소나 단기 보호소가 확대 되고, 이용시간도 증대되어 치매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임대 아파트의 운영 실태를 보면 독거노인을 위한 임대주택 증설도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젊은 세대들이 노인 이룸을 차용하여 거주하지 않도록 분양 뿐 아니라 사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담 관리인을 배치하여 노인들이 자녀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노인층을 위한 합리적 가격의 공동 거주시설, 리조트 같은 시설이나, 안정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 그러니까 연금제나 역모기지론 등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1세 여, 부모 비동거).

“최근에는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정말 고령화 시대에 이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노인취업박람회 같은 것도 열린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말고 내실 있게 진행하고, 또 고용안정센터 같은 데서도 노인창구를 따로 마련해서 불편하지 않게 상담하게 해 드리고. 최근 지하철 킥 같은 것을 노인이 하는 건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노인들 일자리도 만들고, 또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 집으로 불러도 부담 없고 서로 좋잖아요.”(43세 여, 부모 동거) 노인 취업 박람회는 노년층의 과거 직장 경험을 무시하고, 노령이라는 이유로 단순 업무만을 제공함으로 노년층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으나 보다 내실 있는 노인 취업 박람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또한 지적되었다.

유럽의 선진국이나 일본의 경우 국가적인 차원보다는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시행되는 여러 프로그램을 보면 부러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가령 유치원의 일부 프로그램(원예, 동물 기르기, 수예나 공작, 교통안전 교육 등)을 그 지역의 노인커뮤니티에서 도움을 주고 노인들은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을 실시하면 일정한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될 겁니다. 앞서 정신적 웰빙이나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도 이러한 사회적 역할 부여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4 여, 부모 동거).

V. 요약 및 결론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우리사회도 평균수명의 연장과 지속적인 출산을 감소에 따라 앞으로 노인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견되나 사회적 수준의 대책은 아직도 미비하다. 준비 없이 다가온 고령화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부양과 노인관련 문제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에서 노인부양과 노인관련 문제의 주책임은 가족에게 부과되고 있고, 다만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등의 소극적인 해결책이 부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혼의 자녀세대를 대상으로 그들의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부양의 경험에서 오는 실제적 어려움, 가족부양책임에 대한 의견, 국가와 사회의 지원에 대한 기대와 국가정책에의 만족도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초점집단토론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노부모부양의 우선적인 책임이 가족에게 부과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아직은 지배적이거나 가족 중에서도 장남이나 맏며느리에 국한된 의무로 여기던 인식에서 점차 자녀 모두의 책임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초점집단토론의 결과에 의하면 여전히 장남과 아들에 대한 노부모의 부양기대는 남아있으며 이것이 가족 내의 보이지 않는 갈등요소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자녀들은 노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노부모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으며 특히 노부모의 건강이 나빠질 경우에 부양이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고령화로 노인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이 노인 부양을 전담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노인부양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 노인부양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대체로 불만족하였으며, 오히려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부양을 노인 스스로의 책임으로 보고 젊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해두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많았다.

참고문헌

- 김두섭·박경숙·이세용 (2000)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와 중년층의 노후 부양관” 《한국인구학》 23(1):55-89.
- 김두섭·박상태·은기수(편) (2002) 《한국의 인구 1, 2》 통계청.
- 김상욱 (2000) “노인부양의 불일치: 태도-행위의 세대내 불일치 및 세대간 불일치” 《한국사회복지학》 42:41-82.
- 김윤정·이창식 (2005) “미래세대를 위한 노인부양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성곡학술문화재단, 36:333-402.
- 김정석·김익기 (2000)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155-168.
- 김태현 (2002) “고령화 사회에서의 가족과 지역사회” 《고령화 사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산사회복지재단.
- 모선희 (2000) “효 윤리의 현황과 과제” 《현대사회와 효의 실천방안》 한국 노인문제연구소, 63-84.
- 박영란 (2000) “효관련 연구의 현황과 과제” 《현대사회와 효의 실천방안》 한국노인문제연구소, 85-112.
- 윤진·은기수 (1995) “한국의 노령화에 대한 이해” 《동서양의 노령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윤현숙 (2000) “노인부양: 가족의 책임인가 사회의 책임인가” 《가족법연구》 14.
- 조성남 (2004) 《에이지 붐 시대-고령화 사회의 미래와 도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최순남 (2002) 《현대노인복지론》 범문사.
- 최정혜 (1999)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및 부모부양의식 세대별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9).
- 통계청 (2002) 《사회 통계 조사보고서》.
- _____ (2005) 《장래인구추계》.

Challenge of the Aging Society and Familial Support for the Elderly

Sung-Nam Cho

This study presents limitations of the old family supported system for the elderly being surfaced in the face of the changing life style of the people in today's industrialized, urban Korean society. The qualitative data used for this study are collected from the focus group discussions(FGD). The FGD data numbered a total of 43 participants who were divided into 8 different groups, each consisting of 5-6 respondents sorted out by sex and age as well as by their current cohabitation with their parents or having such experience in the past. The study paid special attention focusing on the values and the expectations regarding the elderly support and the family relationship. A critical reexamination of the old family support system for the elderly at this particular juncture is also a step forward necessary for the eventual formulation of policy measures by the state and the society to produce a new viable support system for the elderly in the future.

Key Words: aging society, elderly support system, family support, Focus Group Discussion(FGD).